

石油—最近의 世界需給動向 과 展望



李 愚 賢
(國際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I. 머리말—지난해의 回顧

국민경제에 있어서 石油은 人体의 皮에 비유할 수 있다. 人体에 있어서 血液의 정상적인 生成, 循環이 健康을 유지하는데 基本的인 要素인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石油의 円滑한 調達 내지는 流通은 健全한 國民經濟를 위하여 必須的인 要件인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安定成長을 위해서 石油의 安定的供給은 工業化가 進展된 나라일수록 더욱 重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루 52万배럴정도의 石油의 調達이 必要한 바, 이의 安定的이며 廉價의 調達은 現在 韓國經濟가 當面한 重大한 課題中的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해의 世界的인 第2次石油波動에 直面하여 不足物量의 確保와 油價暴騰으로 인한 負擔으로 어려운 局面을 經驗하였다. 우선 지난해의 石油波動과 우리의 經驗을 回顧해 보자.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두번째로 石油輸出 大國이던 이란에 지난해 年初 政變이 發生된 것을 契機로 世界의 石油需給은 全般的으로 逼迫化하였다. 여기에 消費國들의 物量確保 競爭, 메이저의 投機,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減産등이 複合되어 73年末의 一次石油波動以後 또 한차례의 世界的인 危機를 맞게 되었다.

그 結果 世界石油市場에는 전에 볼수 없었던 여러가지 構造의 變化가 나타났다.

이를 간추려 보면, 우선 供給構造面에서 나타난 가장 큰 變化는 메이저의 地位 後退와 이에 代替되어 産油國의 石油支配力이 크게 強化되었다는 点이다. 73年 石油波動을 契機로 OPEC産油國들은 메이저로부터 原油生産 및 價格上의 決定權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流通配分權은 여전히 메이저가 支配해 왔다. 지난해의 이란政變을 契機로 各産油國은

需給의 逼迫狀況을 利用, 그들의 影響力을 擴大하여 流通部門에 直接介入을 強化하였다. 즉 메이저에의 配分物量을 삭감하고 直去來(Direct Deal) 내지는 政府間 去來(GG base)를 擴大하였다. 따라서 메이저는 原油確保量이 減少됨에 따라 이제까지 供給하던 消費國에 供給量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두번째의 큰 變化는 原油價格의 暴騰과 油價體系의 혼란이라고 하겠다. 79年初 배럴당 14.55달러에 불과하던 OPEC原油의 公示價는 12月에는 26.53달러까지 引上되었고 油價體系마저도 자유로이 프리미엄을 붙이는 混亂이 야기되었다. 더우기 12月 카라카스OPEC 總會以後 油價는 多元化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石油需給事情의 惡化로 現物市場(Spot Market)의 去來가 活性化되어 지난 12月末에는 하루 約 300萬배럴의 物量이 去來되었고, 現物價格도 79年初 14.8달러에서 12月에는 45달러까지 暴騰하였다.

石油情勢에 관한 또하나의 變化는 OPEC의 強力한 減産政策이라고 하겠다. OPEC 諸國은 이란政變을 계기로 自國의 工業化를 서두르는데 대한 反省과 石油開發에 따른 政權 및 社會의 不安定을 깊이 우려하게 되므로서 資源保存을 가능한한 強化코져 하였다. 즉 오일 달러의 流入과 工業化의 추진으로 外國人의 大量 流入 등으로 社會内部의 不安이 高潮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OPEC의 石油增産은 앞으로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世界市場의 構造變化, 石油物量 不足, 高價化등의 영향으로 全量을 輸入에 의존하여 조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不足物量의 充當과 油價負擔의 加重으로 어려운 狀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우

리나라와 같이 에너지需要에 대한 石油依存度가 높고(78年現在 61.2%), 原油의 供給構造및 루트가 취약한 상황하에서는 그 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GULF, CALTEX, UNION 등 메이저로부터 全量을 供給받는 間接的인 導入方式에 依存, 世界石油市場에의 參加經驗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급격히 불어온 石油危機는 이들 메이저의 供給削減에 直面하여 不足物量을 그때 그때 現物市場에서 高價로 급급하게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第2次石油波動으로 지난해 6月과 今年 1月末의 2次에 걸쳐 大幅의 國內油類價의 引上調整이 斷行되었다. 이로 인한 국민경제에의 負의 波及效果는 이제까지의 高度成長經濟에 브레이크를 거는 決定的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해 이래 받은 苦痛과 아픈 經驗을 살려 海外로부터 오는 打擊에 보다 伸縮性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事前的으로 對備하는 姿勢를 確立하여야겠다. 다시 말해서 經濟構造를 脫石油化의 方向으로 이끌어 石油依存度를 줄여가고 代替에너지開發을 서두르는등 에너지源의 安定的確保에 政策的優先(Priority)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原油導入體制를 直去來의 擴大, 導入先의 多邊化등을 통하여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危機에 대처하기 위해 危險을 分散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世界의 石油情勢의 變化에 민감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展望에 관한 正確한 認識이 必要하다.

II. 最近의 需給動向

1. 生産動向

世界의 石油生産은 今年에 들어와 OPEC 會

石油 — 最近의 世界需給動向과 展望

員國의 積極的減産으로 産油量이 減少 추세에 있다.

世界原油生産의 2/3程度를 生産하고 있는 OPEC는 資源保存 및 石油收入을 最大化하기 위한 産油量調整에 의하여 減産을 強化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락을 제외한 大部分의 OPEC 會員國은 今年에 들어와 産油量이 지난해 수준을 훨씬 미달하고 있는데 이중 특히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및 아프리카産油 3國(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아)이 積極 減産하고 있다.

한편 OPEC會員國中 世界最大의 石油輸出國인 사우디아라비아는 西方經濟에 대한 配慮와 親美關係등 政治의理由에서 950萬배럴/日 水準을 유지하고 있고, 이락은 石油收入의 必要와 OPEC內 主導權을 위하여 지난해 平均生産水準(350萬배럴/日)을 유지하고 있다.

結果의으로 OPEC의 總産油量은 지난 12月 하루 30.8百萬배럴에서 今年 4月에는 27.8百萬배럴로 하루 3百萬배럴이 減産되었다.(表1 참조)

이상과 같은 OPEC各國의 減産과는 달리 非

〈表1〉 自由世界の 産油量 推移 (單位: 千배럴/日)

國 家	79. 12	80. 1	80. 2	80. 3	80. 4	增加率 (前年末對比)	生産能力
사우디	9,500	9,500	9,500	9,500 ²⁾	9,500	0.0	10,500
이 란	3,000	2,300	2,500	2,000 ²⁾	1,800	△ 4.0	4,500
이 라 크	3,700	3,500	3,500	3,500 ²⁾	3,500	△ 5.4	3,800
쿠 웨 이 트	1,950	1,850 ¹⁾	2,050	1,800 ²⁾	1,300	△33.3	2,500
U A E	1,872	1,741	1,731	1,696	1,707	△ 8.8	2,480
카 탈	545	496	458	498	499	△ 8.4	650
베네수엘라	2,417	2,281	2,200	1,997	2,045	△15.4	2,400
나이지리아	2,154	2,157 ¹⁾	2,161	2,156	2,150 ²⁾	△ 0.2	2,400
리 비 아	2,105	2,100	2,100	2,000	1,750 ²⁾	△16.9	2,100
인도네시아	1,556	1,563 ¹⁾	1,557	1,574	1,580 ²⁾	1.5	1,600
알 제 리 아	1,000	1,000	1,000	1,000	1,000 ²⁾	0.0	1,200
에쿠아도르	210	222	220	190	250	19.0	250
가 봉	200	200	200	200	200	0.0	250
중립지대	588	577	567	572	534	△ 9.2	600
O P E C 計	30,796	29,487 ¹⁾	29,752	28,683	27,815	△ 9.7	35,230
美 國	8,581	8,459	8,506	8,694	8,761	2.1	—
北 海	2,055	2,185	2,250	2,237	2,057	0.1	—
멕시코	1,671	1,725	1,725	1,830	1,887	12.9	—
오 만	285	283	276	278	272	△ 4.6	—
其 他	5,610	5,610	5,610	5,468	5,368	△ 4.3	—
非OPEC計	18,210	18,262	18,367	18,507 ¹⁾	18,344	0.8	—
自由世界總計	48,997	47,847	48,119	47,190 ¹⁾	46,159	△ 5.8	—

註: 1) 修正値 2) 推定値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Apr. 7 1980.

石油 — 最近의 世界需給動向과 展望

OPEC產油國의 石油生産은 增加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금년에 들어와 멕시코와 北海油田의 增産이 顯著하여, 非OPEC產油量은 지난해 年末보다 10~30萬배럴이 增産되었다.

따라서 自由世界(共產圈除外)의 總產油量은 結果적으로 지난 12月 49.0萬배럴에서 今年 4月에는 46.2萬배럴로 約 2.8萬배럴이 減産되었다.

이와같은 世界的인 石油供給減少 추세에도 불구하고 需給情勢는 今年初 以後 지난 年末보다 다소 好轉되었고, 現在에도 하루 約50萬배럴의 供給超過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需要面에서 世界景氣의 鈍化와 美, 日, 西歐 등 主要國의 石油輸入억제로 인하여 需要가 줄고 있고, 先進各國의 備蓄物量이 충분히 높은 水準(80年 4月 現在 世界的 備蓄量은 約50億배럴에 달함)에 있기 때문에 備蓄을 위한 需要가 이미 한고비 넘어섰기 때문이다.

2. 油價動向

OPEC油價는 지난해 12月の 카라카스總會에서 油價가 多元化되었고 今年에 들어와 數次에 걸친 OPEC會議를 통하여 單一化가 시도되었으나 그때마다 決裂되었다. 今年들어 產油國들은 油價에 市場프리미엄 또는 割增金을 賦課함으로써 油價體系를 극히 혼란케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油價引上을 단행하였다. 즉 OPEC各國은 지난 1~2월에 걸쳐 배럴당 2~4 달러씩 引上한 후에도 쿠웨이트, 이란등이 自國油價에 프리미엄을 2.5달러씩 追加하는 등 자유롭게 油價를 引上하였다. 또한 5월에 들어서서는 사우디를 비롯한 大部分의 產油國들이 알지에 OPEC總會(6月 9日)를 앞두고 배럴당 2 달러씩 引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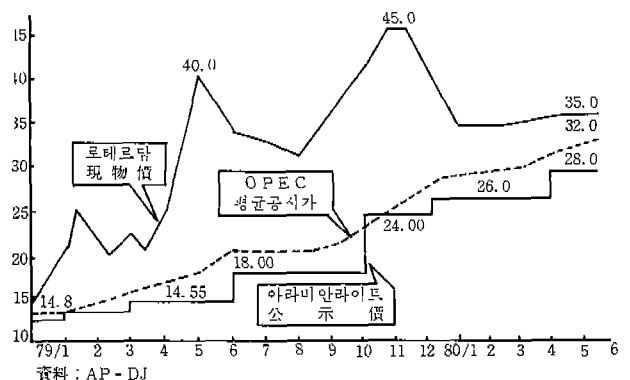
알지에 OPEC總會에서는 油價單一化를 위한 調整案에 合意하였으나 實際로는 實現되지 못하였고 7월부터 쿠웨이트, 이라크 및 아프리카 3國등이 1~2 달러의 追加引上을 단행하는 結果를 낳았다.

結果적으로 今年上半期中 OPEC의 平均公示價는 昨年 12月の 배럴당 26.53달러에서 5월에는 31.31달러로 20.6%의 大幅의인 引上이 초래되었다. 더욱이 쿠웨이트등이 7월부터 1~2 달러를 引上함으로써 現在의 OPEC平均公示價는 32달러를 上廻하였다. (그림 1 參照)

한편 지난해 12月 배럴당 45달러까지 記錄한 바 있는 現物市場價格은 今年初 이래 계속 弱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原油의 需給事情을 가장 민감하게 反映한다는 現物市場價格은 需給의 완화와 主要國의 充分한 備蓄에 따른 市場介入의 기피등으로 35달러까지 下落하였다. 4月末부터 5月初에는 美·이란事態의 長期化 및 美國의 人質구출작전 失敗에 基因하여 石油情勢가 一時的으로 不安, 다소 反騰하여 36달러까지 이르렀으나 그후 世界的 景氣 沈滯, 消費節約 強化 및 非盛需期인 点등의 理由로 需要가 減退하여 35달러線이 維持되고 있다. 이와같은 現

(그림 1) 原油價 推移(아라비안·라이트油基準)

單位: 달러/배럴



物市場의 弱勢는 一部 強硬派産油國들의 長期 契約價格(프리미엄 포함)이 現物市場價格을 上廻하는 異例的인 狀況을 낳았다.

3. 消費國動向

73年 一次石油波動을 계기로 産油國의 카르텔인 OPEC에 對應, OECD會員國中 21個國으로 結成된 IEA(國際에너지機構)는 2次石油波動으로 그 活動이 活性化되고 있다.

IEA는 當初 緊急時 加盟國相互間 石油의 融通을 기한다는 短期對策에서 출발하였으나 最近에는 中長期對策에 重點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IEA는 石油危機를 해소하는 對策으로 各國이 積極的인 消費節約과 代替에너지 開發을 서두를것을 主張하고, 各國의 石油輸入量에 대한 調整을 試圖해 왔다. 특히 最近 會議에서는 各國의 輸入上限線 設定등 非常計劃에 합의하는 등 需要抑制에 具體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IEA의 活動에는 限界가 있다. 各國은 石油事情이 서로 다르며 輸入制限에 대한 強制性을 부여하기 어렵기때문에 短期的인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영향력을 크게 期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世界各國은 石油危機에 대한 一次的인 對策으로 消費節約을 強化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當初 石油輸入量을 850万배럴/日로 設定하였으나 最近 이를 820万배럴로 縮少 調整하는 한편, 石油에 대하여 輸入稅(배럴當 4.5달러), Windfall Profit Tax를 새로이 부과하는 등 積極的인 消費抑制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西獨, 日本등도 國內消費節約을 積極 推進하고 있으나 지난해 IEA東京會議에서 設定한 수준에서 各國이 輸入을 制限할 것을 主張하여 追

加的인 輸入縮少를 主張하는 美國의 見解에는 反對立場을 취하고 있다. 西獨, 日本등은 그들의 經濟構造上 追加의 輸入縮少가 國內에 너무 큰 支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4. 共產圈의 動向

共產圈의 石油需給事情은 現在 自由世界에 하루 120~130万배럴을 供給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共產圈内部에도 가까운 장래 石油不足이 豫期된다는 점에서 世界需給에 重要的 의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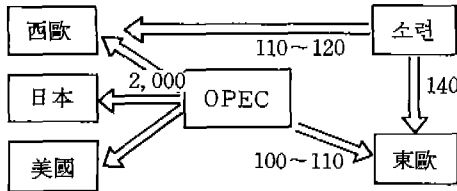
共產圈의 石油事情은 全般的으로 西方및 自由世界만큼은 緊迫하지 않다. 그러나 最近부터 소련의 增産에 限界가 나타남으로써 共產圈에도 石油問題가 큰 課題로 대두되었다.

世界最大 産油國인 소련은 79년에 1,170万배럴/日을 生産하였고 今年에는 1,212万배럴/日을 生産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今年 1月에는 原油生産이 1,182万배럴/日에 머물렀으며 그以後에 관하여는 公式發表를 피하고 있으나 그 生産이 더욱 不振한 것으로 推定된다.

소련은 石油의 埋藏量에 있어서 確認埋藏量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이어 世界3位(約600億배럴)에 이르고 있는데 積極的인 深査活動에 따라서는 確認埋藏量이 크게 增加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소련은 深査技術, 採油技術이 西方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있고 石油深査 및 生産裝備의 主要部品을 西方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간事態이후 美國의 主要物資의 對蘇禁輸로 現在 石油의 開發生産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在 소련은 外貨(Hard currency)의 確保를 위하여 西歐에 110~120万배럴/日을 輸出하고

[그림 2] 東西間의 石油需給(80年 展望)
(單位: 萬배럴/日)



註: 石油去來量은 美CIA資料 및 OECD
統計에서 推計
資料: 日經新聞, 80. 4. 28

있고, 폴란드, 東獨등 石油生産이 거의 없는 東歐圈 및 越南, 쿠바등에 140萬배럴/日을 供給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 參照). 最近의 生産不振과 國內消費增大로 東歐圈의 需要增加를 充足시킬 수 없으므로 소련은 東歐圈에의 石油供給을 制限하기 始作하였다. 또한 將來의 石油不足과 東歐圈에의 円滑한 供給을 위하여 中東에의 接近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占領도 中東에의 接近을 위한 強硬策으로 풀이된다. 國內적으로는 天然가스의 生産에 拍車를 가하고 있으며 原子力發電과 石炭利用의 積極化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中共의 경우에는 石油賦存量에 대하여 推定機關 및 學者에 따라 상당히 見解差異가 있으나 대체로 確認埋藏量은 200億배럴程度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外國資本에 의한 海底油田(Offshore)의 開發을 積極化함으로써 수년내에 확인매장량이 急伸張할 가능성이 크다.

中共은 現在 하루 212萬배럴程度를 生産하고 있으며 이중 약 10%를 輸出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日本으로 향하고 있다. 中共의 原油生産은 75年以後 매년 8~10%가 增加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의 增産에 머물러 앞으로의 增産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中共은 積極的인 4

大近代化의 推進과 더불어 石油消費가 크게 增加할 것이며 80年代前半에는 그 增産이 크게 기대되지 못함으로써 輸出餘力은 약간의 增加에 머물 展望이다. 따라서 中共의 石油는 現在 探查·開發中에 있는 海底油田의 生産이 本格化하는 85年以後에나 그 生産·輸出의 增加가 크게 기대될것으로 分析된다.

III. 今後의 展望

石油問題에 있어서 現代는 더욱더 不確實性의 時代라고 하겠다. 모든 豫測이 마찬가지 이긴 하지만 石油에 관한 장래의 展望에는 너무도 많은 豫測不許의 變數가 內在해 있다.

이는 石油의 主産地인 中東地域이 國際紛爭의 火藥庫로서 最近에는 소련의 中東進出이 점차 적극화되고 있고, 産油國의 內政이 前近代的 統治体制下에 있는 나라가 많아 이란革命과 같은 不安要因이 恒常 內在해 있다. 現在 美·이란 人質問題, 아프간事態등 國際的인 紛爭이 未解決상태에 있다. 따라서 中東에는 언제 또 다른 事態가 폭발할지 豫測하기 어렵다.

石油에 대한 展望은 一般的으로 豫측하기 어려운 政治的 突發事態는 고려밖으로 하고 現政治狀況이 維持된다는 前提下에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豫期할 수 없는 突發事態에 의하여 石油危機가 또다시 나타날 可能性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I. 需給展望

世界의 石油展望에 대하여는 여러 國제적 에 너지 專門機關에 의하여 多數의 見解가 提示되고 있다. 이중 IEA(國際에너지機構)와 IEEJ(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의 見解를 우선 紹介하

기호하자.

IEA는 지난 5月初 발표한 石油需給展望에서 80년에는 이란의 大幅의인 減産을 비롯한 OPEC諸國의 積極的인 減産措置로 OPEC 産油量은 79年보다 11%가 減少하여 2,810万배럴/日水準에 머물것이며, 非OPEC生産은 멕시코와 北海油田의 増産에 힘입어 80万배럴/日이 増加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또한 共產圈으로부터의 供給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表 2 參照)

한편 需要側面에서는 지난해 下半期이후부터 景氣沈滯와 消費節約으로 지난해보다 40万배럴이 減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結果적으로 需給은 今年中 60万배럴의 供給不足이 豫想된다는 悲觀的인 見解를 제시하였다.

中長期(85年~90年)의으로는 OPEC의 産油量은 크게 늘지 않고 소련등 共產圈의 輸出餘力도 低下함으로써 消費國들이 石油需要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85년에는 370万

배럴/日, 90년에는 860万배럴/日의 供給不足으로 世界는 만성적인 石油不足에 허덕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IEEJ는 지난 5月의 發刊物(Energy in Japan)에서 “世界石油情勢의 變化와 展望”이라는 題下에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展望을 제시하였다. IEEJ는 世界의 石油生産이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産油量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今年度에 사우디아라비아는 ARAMCO가 設定한 900万배럴/日이 生産될 것이며 이란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하에 있으나 生産量이 200~400万배럴/日에서 변동하여 年平均 230万배럴/日의 生産이 達成될 것으로 보았다.(IEA의 경우에는 이란은 130万배럴로 豫測)

그밖에 멕시코는 80年末까지 220万배럴/日을, 英國은 200万배럴/日을 生産함으로써 非OPEC 産油量은 前年보다 99万배럴이 増加할 것이며, 共產圈으로부터의 輸入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

〈表 2〉 IEA의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單位: 百萬배럴/日)

	79 (實績)	80	81	85		90	
				A	B	A	B
需 要							
自由世界合計 (IEA 必要輸入量)	51.6	50.5	50.1	60.5 (26.2)	56.5 (22.1)	67.2 (27.9)	59.4 (20.1)
(OPEC自體消費量)	(2.3)	(2.5)	(2.7)	(4.3)		(5.9)	
供 給							
非 O P E C 計	21.2	21.8	22.2	26.0		27.0	
非 OPEC 生産	20.1	20.9	21.5	25.6		28.1	
共產圈輸出	1.1	0.9	0.7	0.4		△ 1.1	
O P E C 計	31.6	28.1	28.1	30.8		31.6	
供給合計	52.8	49.9	50.3	56.8		58.6	
需 給 差	1.2	△ 0.6	0.2	△ 3.7	0.3	△ 8.6	△ 0.8

註: 1) 需給差의 △는 供給不足을 나타냄. 2) 共產圈輸出은 共產圈으로부터 自由世界에의 石油供給量임.

3) 中·長期 展望中 (A)는 IEA各國의 石油輸入抑制가 弱한 경우. (B)는 石油輸入抑制가 強한 경우의 展望을 나타냄.

資料: IEA(國際에너지機構) 關係理事會 報告書 80.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世界의 石油需要는 지난해보다 2%程度減少할 것으로 보았다. 그 結果 80年中 世界의 石油需給은 사우디아라비아가 現在의 950萬 배럴/日 生産수준을 지속한다면 均衡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石油의 경우 그 展望이 불투명할수록 投機 및 備蓄物量 確保競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供給이 需要를 훨씬 초과할 경우에만 情勢의 安定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石油情勢의 不安은 80年에도 예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以上の 두 見解에서 世界의 石油需給은 80年中에도 不安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示唆받았다. 그러나 이상의 見解는 80年 上半期中 需給狀況이 比較的 安定的이었던 점에 비추어 두 예측이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下半期의 盛需期(10月以後)에 들어가면 一時的으로 需給이 크게 파괴될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수긍이 간다. 두 見解中에서 IEA의 見解는 石油不足 상황을 과장하여 消費國들에게 節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기위한 意圖的인 면이 다분히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의 見解로는 IEEJ의 見解가 보다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EEJ 이외에도 Exxon, 美에너지省등도 80年中에는 石油需給이 約20萬배럴 程度의 供給超過가 있을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이를 綜合해 볼때 결국 80~81년에는 소규모의 供給超過에 따라 一時的인 需給완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全般的으로 石油情勢의 不安은 지속될 것이다. 83년경부터는 美國經濟가 回復될 전망임에 비추어 石油需要가 增加함으로써 石油不足에 따른 또 한차례의 危機가 닥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日本山一證券研究

所의 見解). 한편 長期的(85年以後)으로는 石油資源의 限界性과 代替에너지 開發이 不振한 現實을 감안할때 世界의 石油事情은 더욱 悲觀的이라고 하겠다.

2. 油價展望

亂立한 油價體系를 整理하기 위하여 지난 6月的 알지에 OPEC總會에서 OPEC各國은 形式上으로는 單一化方案에 同意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우디등 穩健派와 이란, 아프리카三國등 強硬派間에 對立이 계속되어 單一化가 決裂되었다. 強·穩派間에 油價單一化는 반드시 達成되어야 한다는데 意見이 一致하고 있으나 基準油價의 引上幅, 引上時期에 異見의 調整이 어려워 아마도 今年中에는 單一化가 不可能할 전망이다.

알지에 OPEC總會이후 現在 쿠웨이트, 이라크 등 6個國이 1~2달러를 7月부터 引上하였으나 世界需給이 一時的이나마 供給過剩상태에 있어 餘他國에의 引上擴散이 中止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잠정적이긴 하지만 現在의 油價(배럴當 28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상황으로 筆者의 見解로는 年末까지 全體的으로 1~2회의 새로운 油價引上이 단행되어 OPEC 平均公示價가 現在의 배럴當 32달러線에서 年末에는 34~3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油價展望에 대하여는 世界的인 豫測機關들이 그 예측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理由는 油價가 주로 非經濟的要因에 의하여 主導됨으로써 豫測自体의 신뢰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사정때문이다. 여기에서는 美國의 豫測專門機關인 DRI와 체이스 맨허턴銀行의 豫測을 紹介해 보자.

<P. 36에서 계속>

되거나 國內情勢의 混亂등에 對備하여 軍과 民間에 對한 供給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發足하였다.

이러한 備蓄制度는 軍事的 防衛에 對比하여 經濟的 防衛(Economic Defence)라고 부르고 있는데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經濟的 防衛의 構成

有事時를 對備하여 政府와 民間團體로 부터 必要한 人員을 選拔하여 組織을 構成한다.

그러나 平和時에는 이 組織은 公的으로 表面化 되지는 않는다.

(나) 經濟的 防衛의 運營

經濟的 防衛를 위한 聯邦法律에 따라 運營하되 國內生産의 促進과 適正在庫의 準備로 區分檢討할 수 있다.

① 國內生産의 促進

有事時 經濟的 獨立을 維持하기 위한 基本的

인 要素는 食糧의 自給自足과 産業 生産品의 自給自足이다.

現在 食糧은 60%程度 自給自足以 되고 있으며, 不足量 40%程度가 備蓄對象이 되며 農業生産과 對照的으로 産業生産의 促進을 위한 계획은 아직은 未洽한 實情이며 法的根據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適正在庫의 準備

有事時 輸入通路가 攪亂되는 경우에는 備蓄物資의 適正在庫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對備하기 위해서 스위스 政府는 法令에 따라 備蓄 品目別 「義務的인 備蓄量 (obligatory Reserves)」을 設定하고 있다.

(7) 英國

英國政府는 豫算 및 效果面에서 의문이 있다 고 하여 備蓄問題에 대한 內容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P. 22에서 계속>

DRI는 今年 4月 世界의 油價가 4月 現在 30달러 수준에서 10월에 가서는 32달러 정도 까지 上昇할 것이며 82年末까지는 每分期마다 年率로 20%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82년에는 OPEC의 平均公示價가 約 4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체이스 맨허턴銀行은 지난 4月 世界原油의 平均價格이 80년에 32달러, 그리고 85年

에는 80年實質價格으로 54달러, 90년에는 97달러로 上昇할 것으로 展望하였다.

결국 油價는 앞으로 單一化가 成立되든 못되든간에 실제로는 혼란상태가 지속되면서 계속 上昇하여 世界인플레이를 훨씬 앞지르는 높은 上昇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點만은 확신해도 좋을 것 같다.